

# 오미크론 확산...광주·전남 밀집지역 집단 감염 급증

### 영광 군부대 코로나 감염...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확대 가능성 광주, 공공기관·경찰서 지구대·요양병원·초등학교서 확진자

코로나19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광주·전남에서 군부대와 공공기관, 경찰서, 학교 등 집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6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8347명을 기록했다. 서구 소재 공공기관과 경찰서 지구대에서 확진자가 각각 발생해 역학조사를 했고, 기존에 확진자가 발생해 전수 검사를 했던 초등학교 4곳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산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4명, 남구 소재 초등학교 2명, 광산구 소재 또 다른 초등학교 1명, 서구 소재 초등학교 1명 등이다.

기존 확진자 발생 시설인 동구 소재 요양병원과 제조업 관련해서도 각각 3명, 1명 등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아직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유증상 검사자도 12명이나 돼 조용한 전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망자도 90대 1명과 80대 1명 등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전남에선 12개 시군에서 46명이 신규 확진됐다.

목포 12명, 영광 9명, 무안 6명, 여수·광양·순천 각 4명, 장성 2명, 나주·고흥·화순·해남·영암 각 1명이다.

특히 영광에서는 지역 주둔 군부대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나왔다. 영광 모 군부대에서는 지난 2일 한 부사관이 확진된 데 이어 3일까지 부대 간부 9명, 가족 2명 등 11명이 확진됐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부대원 가족 3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영광 군부대 누적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되면서 군부대 관련 14명의 확진자 모두가 오미크론 변이일 가능성이 커졌다. 부대원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초등생 자녀 등 가족으로까지 전파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슬렁이고 있다.

영광 군부대 집단감염 사태는 부대 간부 중 한 명이 연말 다른 지역에서 가진 가족 모임에 참석하면서 확진자와 접촉, 부대 내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전국에서는 신규 확진자 3024명이 나왔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6만5226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일(3126명)보다 102명 줄었고 1주일 전인 지난해 12월 28일의 3864명보다도 840명 줄었다. 사흘 연속 3000명대를 기록한 것도 지난해 11월 28~30일(3925명→3307명→332명) 이후 35일 만이다.

전국적으로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도 973명을 기록하는 등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위중증 환자 수가 1000명 아래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20일(997명) 이후 보름만이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중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도 지난해 31일 108명으로 100명을 넘은 뒤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는 62명→69명→36명→51명으로 두 자릿수로 집계되고 있다.

3차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도 한달새(2021월 12월5일~2022년 1월1일) 매주 33.4%→30.4%→25.2%→20.7%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4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영광의 한 군부대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 지난해 코로나 확진 하루 평균 15명... 60대 가장 많아

### 감염경로, 확진자 접촉·다중이용시설 순...외국인 확진자 8.9%

지난 한 해 동안 전남에서는 하루 평균 1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발생한 확진자는 총 5560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았다.

4일 전남도의 2021년 코로나 19 확진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는 총 5560명이 코로나 19에 확진됐다. 하루 평균 15명 내외가 발생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도 전국 평균 1033명을 훨씬 밑도는 331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17.2%, 50대 14.2%, 40대 13.7%순으로 고령층이 많았다. 감염경로는 확진

자 접촉 34.9%, 다중이용시설 23.5% 순이었다. 특히 집단 발생은 가족·지인 모임이 24.4%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13.5%, 유흥시설 9.3% 순이었다. 외국인 확진자는 493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8.9%를 차지했다. 국적으로 베트남 35.5%, 인도네시아 10.1%, 우즈베키스탄 9.7% 순이었다.

백신 접종도 빠르게 이뤄졌다. 지난 11월 전남도는 전 도민(184만 명) 대비 2차 접종률 80%를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달성했으며 현재 접종률은 83%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부스터샷 접종률도 45.6%로

전국 평균(36.0%)보다 9.6%포인트 높다.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확진자 발생 규모는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함께 방역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주요했기 때문이라고 전남도는 해석했다.

전남도는 감염 취약 분야에 대해 선제적 진단검사 301만 건을 실시하고 숨은 감염원을 사전 차단했다. 전국 평균 157만 건 대비 2배 수준이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해 밀접접촉자 10만 명을 격리조치했다. 지난 12월 한 달간 확진자 1명당 13.9명을 자가 격리해 전국 평균 3.8명 대비 3배 이상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도민 '삶의 만족도' 커졌다

### 전남도 '2021년 사회조사'...거주지 대체로 만족·의료기관 증가

전남도의 '2021년 사회조사'에서 도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도민의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 등을 파악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전남지역 만 15세 이상 1만9116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항목은 삶에 대한 만족도, 보건·의료, 노동, 안전 등 12개 분야 30개 문항이다.

도민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서 '3점 이상' 비중이 전년도보다 0.9%p 상승한 31.5%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전체 설문 가구의 72.5%가 전남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해 사는 지역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의료기관은 2천844개소로 전년도보다 0.6% 증가했다. 의료인력도 전년도보다 0.2% 늘었다.

전남도민의 하루 흡연량은 14.3개비로 전년도보다 2.7% (0.4개비) 감소했다. 과거 흡연자였으나,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 금연자는 21.1%로 전년도보다 0.8% 증가했다.

일자리 만족도 조사에선 일자리에 대해 '만족' 30.1%, '보통' 56.4%, '불만족'은 13.5%로, 이는 일에 대한 '만족' 31.5%, '보통' 53.7%, '불만족' 14.7%로 응답 결과가 나왔다.

이밖에 야간 활동 및 보행 안전성에 대해서 '안전하다' 48.6%, '보통이다' 37.5%, '불안하다' 13.9%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회조사 결과를 정책개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는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농기원, 100% 국산 '금여울 홍차' 출시

### 즉석 음용 음료...순하고 부드러운 맛·향 자랑

전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국내 최초로 자체 육성한 차나무(보향 품종)로 만든 음료인 '금여울 홍차'를 개발해 도내 업체를 통해 출시했다"고 밝혔다. 홍차는 다양한 색·맛·향기를 낼 수 있어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기호와 입맛에 맞는 제품개발이 가능하다.

수입된 대량생산이 어려워 국내 소비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홍차 음료가 가격, 맛 등에서 소비자층의 만족도 저하로 시장 소비가 부진한 편이다.

이에도 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는 자체 육성한 보향 품종으로 만든 홍차를 한국적 느낌의 '금여울 홍차'라는 상표를 붙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는 RTD(ready-to-drink·즉석 음용 음료) 홍차 음료를 개발했다.

이번 제품은 차산업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생산 기술을 도내 보성차생산자조합에 기술이전 후 쉐다 인우료에서 추출한 것이다. 기존 수입 홍차 분말을 사용하는 타제품들과는 달리 최적의 온도와 시간으로 홍차를 그대로 우려내는 티 브루잉 기법(차잎 차

체에서 추출)를 적용했다. 특히 적색도, 테아플라빈 등 기능성 뿐만 아니라 요즘 소비자가 선호하는 순하고 부드러운 맛과 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정미진 연구사는 "앞으로도 건강을 중시하는 2030 소비자 니즈에 맞게 물을 대신해 수분을 보충하면서도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바로 마실 수 있는 캔, 페트병 형태의 음료를 개발하고 상품화해 차 소비 확대를 촉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금” 구함

- 캠핑장, 애견카페할 자리
- 담양등 광주시 외곽지역
- 임야등 3천평 이상
- 매입금액 1억 정도
- 바로 매입합니다

문의. 010-3605-5000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등 다용도부지, 임야, 매매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상 명지  
담양읍. 금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타라브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상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중 건물 후면 선상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2. 전원주택용 부지와 사재민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읍 경계 산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성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매 9만원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거리 강변 유흥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사정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9십만원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옹기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투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웅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6천원  
(2)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용다수자생 생약재매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윙플러스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주 010-3454-2389

## 아파트 상가 매매

2억 9,000만원

1,500세대 독점상권

- 물건: 나주 이노시티 예시양 아파트
- 전용면적: 32.76㎡ [10P]
- 매매가: 29,000만
- 부가세: 1,100만 원급

[주]초록공간  
010-6786-2600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한지훈(2012-8-XXXXXX)  
• 최후주소: 나주시 그린로 63, 102동 1104호 (빛가람동, 빛가람에이치1단지아파트)  
피상속인 망 한지훈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광역시 법원 2021년 7월 56호로 신청하여 2021년 12월 16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월 5일  
• 상속인: 한중면(940611-XXXXXX)  
나주시 그린로 63, 102동 1104호 (빛가람동, 빛가람에이치1단지아파트)  
• 신고기간: 2022. 1. 5. ~ 2022. 3. 17.  
• 채권신고처: 상속인 한중면의 주소

先州日報 광고번호 1 062-227-9600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제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유언과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의 다음에 가장 장사로 개장을 계획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신산1
2. 분묘가수: 5기
3. 개장처: 대지활동 및 사유재산권보전
4. 개장방법:
  - 유언분묘: 연구자의 협의 후 개장
  - 무언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례에 규정에 의거 공고인 일방개장
5. 안락장소: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로 933-4(삼성주모공원)
6. 안락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90일
7.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90일
8. 공고인명: 정석주(010-4610-0005)
9. 신고요령: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의 위치를 확인(사전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의 관계증명서(후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제에 신고
10. 기타: 개장공고 후 동일지역 내에서 사행이 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유가족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 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감함합니다.

2022년 1월 5일  
공고인: 정석주 (010-4610-0005)

### 분실공고

• 분실계약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64-1번지 일원 제일생명경제 센터빌 파크 204동 1001호  
• 계약자: 박 종 식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2년 1월 5일

先州日報 지역안내

북구 • 동 266-1920 • 동 266-1980 • 북광주 525-0761  
신 안 222-8171 • 영 산 571-7688 • 오 치 266-7601  
• 동 433-1503 • 우 신 433-1503

동구 • 남 광 673-9836 • 동 광 222-9054 • 동 부 225-0001  
• 영 양 222-9054 • 동 광 222-9171

남구 • 남 부 673-9836 • 백 은 661-1833 • 봉 선 673-9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 경 선 382-5788 • 상 무 372-2382 • 새광주 369-1625  
• 영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봉 암 603-0311  
• 화 평 369-1625

광진구 • 온 남 952-1687 • 필 국 950-1920 • 단 인 973-2900  
• 하 남 955-0451 • 경 선 944-9444